

■ 가해·제2360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가정 성화 주간

2025년 12월 28일

춘천 주보

루카 조르다노 〈성 요셉의 꿈〉

1700년경, 캔버스에 유채, 인디애나폴리스미술관, 미국



▣ 목 차

- 02 말씀의 향기
성가정
- 03 평신도 단상
가정 성화의 날을 맞으며
- 04 특집
춘천교구 기억의 서랍을 열다 ³⁰
- 05 담화 요약
제25회 가정 성화 주간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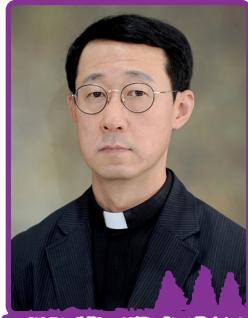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마태 2,13-15.19-23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박재현 시메온 신부
기린 본당 주임

성가정



예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당신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각각 95%와 90%를 차지하며 1,2등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였는데, ‘돈 버는 일에’가 95%, ‘명예를 얻기 위해’가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일에는 겨우 7%의 시간밖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동물들의 밥통에 몸을 뉘었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못 하고 죽음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호적에 아버지로 등록된 요셉은 평생 양아버지로 살았고, 아들이 자라면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가 바라보는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무참히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 출세와 성공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느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걱정도 어려움도 없는 가정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리를 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 이것이 바로 성가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라면, 형제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틀을 강요하지 않고, 더 잘 사는 것같이 보이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여정입니다.



가정 성화의 날을 맞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성당 입구에는 구유가 마련되었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과 무릎 끓고 기도하는 마리아, 요셉의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귀하게 들어옵니다. 성모상 둘레 소나무의 반짝이는 전구의 불빛이 우리 모든 가정에 기쁨과 평화를 전해주는 듯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인 오늘은 ‘가정 성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사 때마다 본당 교우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미사 참례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옆자리에 다정히 앉아서 함께 성가를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은 참은총의 시간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말하며 서로 가볍게 안아주면 그 순간 참 평화가 밀려옵니다. 어쩌다 혼자 미사를 하기라도 하는 날엔 왜 혼자냐고 꼭 물어오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가 별일 없는 한 함께 붙어 다닌다는 걸 실감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동시에 온 가족이 같은 시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참 축복받은 일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처럼 저희 가정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롤로 3,21)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머리를 ‘탁’ 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처럼 딱 제가 그런 부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때를 돌아봐도 많은 반성이 됩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저희는 교구에서 해마다 서너 차례 시행하는 ME(Marriage Encounter)주말을 다녀오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혼인하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서로를 소홀히 하였지만, ME 주말을 다녀온 후 배우자의 소중함도 알았고, 자녀들을 더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느낌을 나누며 대화해야 한다는 것과, 배우자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커다란 수확이었습니다. 그때의 좋은 기억으로 지금까지 ME와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부부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ME 프로그램을 체험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성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모범을 보이며 잘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 ‘참 좋은 모습’ 이 아닐까요?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 나무 햇순들 같구나.” (시편 128,3)

이 성경 구절은 늘 저를 아련하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여린 햇순을 보듬어 풍성한 포도 열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이니까요. 더 나아가 이주민과 해체된 가정, 위기를 겪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송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춘천교구 기억의 서랍을 열다 30.....

글: 강원교회사연구소

신자들의 삶 속에서 피어난 복음의 기록, 『경향잡지(京鄉雜誌)』



14.9cm*21.7cm



한국 천주교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잡지인 경향잡지는 1906년 한글 전용으로 창간되었다. 창간 당시 제호(題號)는 『보감(寶鑑)』으로 교리에 관한 논설, 법률 문답, 교회사에 관한 기사가 주요 내용이었다. 법률 문답이 주요 내용이었던 이유는 일본이 식민 통치를 위해 법을 함부로 제정하여 공포하자, 법을 몰라 신자들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911년 경향잡지로 제호를 바꾸고, 1933년 연재소설, 독자 투고란 등을 마련하며 근대 잡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신자들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행된 경향잡지는, 단순히 교회 소식을 전하는 홍보물이 아니라 신앙의 근간을 가르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깨우는 등 신자 교육을 사명으로 삼았다.

신자들 역시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의 혼란 속에서 때로는 성당의 문조차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려웠지만, 경향잡지를 통해 교회의 숨결을 느끼며 믿음을 지켜냈다. 억압과 빈곤 속에서도 잡지를 손에서 손으로 돌려보면서, “하느님,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경향잡지가 걸어온 길은 곧 한국교회의 발자취이기도 하다. 각 시대를 살아낸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남긴 증언, 묵상, 삶의 이야기 속에는 진실한 신앙의 씨앗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래서 한 권의 잡지를 펼치는 일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공동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지켜왔는지를 돌아보는 소중한 작업이다.

경향잡지는 단순한 종이 매체가 아니라,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길동무를 하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신앙공동체의 결음과 은총을 이어준 복음의 동반자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형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경향잡지는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는 기록물로서 한국 천주교의 삶과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교구 역사 사료를 상시 기증받고 있습니다. 문의: 033-261-6081

* 지금까지 「춘천교구 기억의 서랍을 열다」를 연재해 주신 강원교회사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전기용품 사용 후 전원 끄기(플러그 뽑기)

제25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 요약

생명 수호가 선물하는 참평화

오늘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시작으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 성화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 성화 주간은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본연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찾고 마음을 다잡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외적 생활의 공간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가장 작은 교회 곧 ‘가정 교회’입니다. 이러한 가정 교회는 생명을 환대하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 주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교회도 이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살아갈 방법을 제각기 찾는 각자도생이 아닌 한마음으로 서로 돋는 동심협력을 지향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함께 수호해야 할 생명이 때때로 위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음의 문화’라 일컬어지는 생명을 거스르는 행위나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위협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낙태 정당화의 흐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와 법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모자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태아의 생명이 더욱 취약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법적, 사회적, 개인적 이유도,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행위는 결코 정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법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릇된 생명관에 맞서, 신앙 안에서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한결같이 외치며,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 내야 합니다.

특별히 법과 제도는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장 약한 이를 그 누구보다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태아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기준이 완화될 때 사회 전체의 생명 문화 또한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마다의 사정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가 담긴 예수님의 눈길로 그들이 받은 상처와 위기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공감하며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곧 판단하기에 앞서 함께 아파하고, 취약함을 돌보며, 동행하고자 합니다.

생명 수호에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잉태된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임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며, 보호는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 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참평화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참행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도 ‘생명 수호 순례’의 여정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주님 성탄의 신비 안에서 거룩함의 은총으로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희년 폐막 미사
12. 28.(주일) 11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교구청 송년 미사 및 종무식
12. 31.(수) 15시

교구청 시무 미사
1. 2.(금) 9시

견진 성사
성산 본당: 1. 10.(토) 11시

구인란 토마스 주교 55주기



생년월일 : 1896. 09. 13.
주교품 : 1955. 11. 23.
선종 : 1970. 12. 31.

황영택 요한 사도 신부 30주기



생년월일 : 1948. 02. 02.
서품일 : 1976. 12. 09.
선종 : 1996. 01. 04.

백응만 다마소 신부 76주기



생년월일 : 1919.
서품일 : 1945. 11. 21.
선종 : 1950. 01. 05.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니다.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솔모루 이주민센터 성탄 행사
12. 28.(주일) 11시

솔모루 이주민센터 송년 미사
12. 31.(수) 21시

여성연합회 월례회의
1. 3.(토) 15시, 여성연합회 사무실

황영택 요한 사도 신부 30주기 미사
1. 5.(월) 11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신부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1월 카나 혼인 강좌

1. 24.(토) 18:30, 우두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연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1. 11.(주일) 14~16시, 퇴계 성당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묵주기도 100단 봉헌 및 감사 미사
1. 2.(금) 19시, 화현 이벽 성지
오시는 길: 화동로 447(이벽 유적지)
☎ 031-531-2234 화현 이벽 성지

성령쇄신 봉사회기도회

매 (화) 19~22시, 소양로 성당/미사: 19시
☎ 010-2962-4051 회장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 10.(토) 10시, 스무술 성당
후원회 현황 QR코드 스캔▶
후원회원들과 입대를 앞둔 신자와 그 가족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033-263-9750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1. 17.(토) 소양로 성당
10시: 체나콜로 기도 / 11시: 미사
☎ 010-9931-1016 총무

춘천 교정봉사회 봉사자 모집

남사: 매 (목) 15시
여사: 마지막 (화) 15시
☎ 033-264-5011 한삶의집

2025년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안내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2025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의3 4항의 근거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의 수기 발급(종이 기부금영수증, 본당양업상 출력 포함)이 불가합니다. (2024년도분까지 출력은 가능)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간소화 동의한 신자의 기부금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에 한해서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업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업명의 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발급 가능하며 교구에서 매월 10일 기준으로 등록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부자 변경 불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금 수납 현황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납부자 및 책정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 발급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기부자명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당 사무실을 통해 '전자기부금제출 동의서'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간소화 동의서'에 동의한 신자는 '전자기부금제출 동의서'로 자동 동의됩니다.)

성소모임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착한목자수녀회

010-7197-1390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수시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 난청상담 /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이철형 세무사사무소(속초)

양도 · 상속 · 증여/세무상담 · 신고
재산 컨설팅/세무조사 대응
☎ 636-9070, 010-9880-9070
이철형 토마스

오티콘 보청기 속초점

무료 청력 검사 / 이명 난청 상담
131만원 보조금 / 출장 방문
☎ 010-5709-2112
김성현 루치오

인준시설

일반알림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분야: 생활재활교사 2명(남숙소)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주민번호, 사진, 추천인, 종교 기재금지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훈련생 모집
만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
훈련시간: 9~17시(월~금)/출퇴근차량 운행
훈련내용: 임가공작업(직업평가, 재활훈련 등)
☎ 033-261-7111 전화접수 후 내원갈바리노인복지센터 1방문재가 어르신모집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 및 취사, 말벗,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관련 상담도 해드립니다. ☎ 033-644-3477어우리단기보호소 조리사 모집
60세 이하 자격증 소지무관/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우편, 이메일 uwoori0625@hanmail.net
☎ 033-264-0384 / loveuwoori.com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집
대상: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보듬지역아동센터 조리사 모집

학기중 14:30~18:30 / 방학중 10:30~14:30(시간조정가능) 주 5일 4시간 근무
급여: 1,053,150원 / 퇴직연금 / 4대보험
☎ 033-263-0101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 2.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 3. 일본(나가사키운전 하라도) 4일 (155만원)
3. 17.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495만원)
4. 6.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550만원)
4. 14.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550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02-778-8565

2. 14. 구정특선 남인도 7일(399만원)
2. 21.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13일(549만원)
2. 22./3. 15. 튀르키예 그리스 12일(489만원)
3. 11. 유럽성모발현지 10일 (475만원-대한항공)

올 한해 가톨릭춘천신협에 가져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 033-255-6742
지점(거두리) ☎ 033-262-6742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강릉시 주·단기 이용자(입소자) 모집

대상: 강릉시 거주 발달장애인
장애인주간이용(나래교실)/단기거주(푸른나래)
☎ 033-652-5041 문의

제주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제주순례: 1. 9.~11./1. 23.~25./2. 6.~8.
2. 27.~3. 1./3. 27.~29./4. 5.~7./4. 18.~20.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 15.~18./1. 30.~2. 1.
추자도성지순례: 3. 5.~8./3. 12.~14./3. 18.~21.
☎ 064-732-4702 면형의 집

영신수련 대침묵피정

12. 26.(금)~1. 4.(주일)/1. 8.(목)~1. 17.(토)
1. 23.(금)~2. 1.(주일), 예수마음배움터

☎ 02-3276-7794 문의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 14.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구정연휴
3. 10.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60만원-대한항공)
3. 24. 튀르키예, 그리스(12일 480만원)
4. 7.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50만원)
5. 12.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90만원) KE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송구 영신 철야 기도회

12. 31.(수) 18시~1. 1.(목) 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미사/안수/석식무료)
강사: 정월기 프란치스코 신부,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예수회 호주관구)
김요환 분도 회장
☎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연중피정 접수중)
자연순례/한라산: 1. 10.~12./1. 16.~18./1. 22.~24.
1. 26.~28./2. 1.~3./2. 7.~9./2. 21.~23./2. 26.~28.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tv 274번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평화 장례를 돋는 사람들(춘천)

평화상조 강원본부장 · 회원가입
윤달 및 윤년 묘지이장 · 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춘천 장례식장

교구와 장례 복지 협약 체결
관+수의 무료제공
사망진단서 자체 발급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타이어 스타

타이어판매 및 교체
배터리 교환 / 엔진오일 교환
춘천시 퇴계농공로 17(예치과 뒤)
☎ 263-8403, 010-6376-8403
김혜혜 베네딕타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짓다

춘천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광고기간: 3개월(12주) / 6개월(24주)
구비서류: 교적사본, 사업자등록증(필수),
광고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www.cccatholic.or.kr

*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 033-240-6012 홍보실